

《한국추상미술 하이라이트》 개최 계획

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 추상미술 흐름을 조망하는 동시에 대구 지역 추상미술의 흐름과 특징을 연구하여 국내 및 지역 추상미술의 계보를 정리하고 시민들에게 추상미술의 정수를 감상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

I 목적 및 기대효과

- 한국 추상미술을 대표하는 주요 작가의 작품을 모아 시대별 양식 특징을 조망하고 시민에게 추상미술의 정수를 감상할 기회 제공
- 1950년대 이후 본격화된 대구 추상미술이 국내 흐름에서 지니는 의미를 연구하여 한국 추상미술 가운데 지역 추상미술의 위상을 재정립
- 시민들에게 한국 추상 미술사 강연 및 작품 해설을 제공하여 전시 감상 만족도 제고
- 2025년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 운영개선 계획에 의거 「기획전시 전용공간」 설치 후 개선 공사 후 첫 기획전시로 미술관 전문성 및 정체성 확립

II 전시개요

- 전 시 명: 한국추상미술 하이라이트
- 전시기간: 2025. 2. 27.(목)~4. 13.(일) / 39일간(매주 월요일 휴관)
- 전시장소: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 1~5실
- 전시작품: 회화, 조각, 영상 등 60여명 80여 점
- 작품출처: 소장품 35여점, 대구미술관 30여점, 국립현대미술관 1점, 이성자 미술관 1점, 개인소장가 및 작가 5여점
- 부대행사
 - 개 막 식: 2025. 3. 5.(수) 17시 중정홀
 - 강 연: 2025. 3. 13.(목), 20(목) 15시 중정홀
- 주최주관: (재)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문화예술회관

Ⅲ 전시구성 및 추진일정

■ 섹션별 구성안

1. 동시대 추상의 전개(1실): 국내 및 대구 활동 중인 동시대 추상 작가
-주요작가: 곽훈, 김구림, 권정호, 박두영, 이교준, 권오봉, 김영세, 홍현기, 송광익, 남춘모, 박종규, 김호득, 차계남, 김결수, 정은주, 백미혜
2. 단색화(2실): 국내 미니멀 경향의 모노크롬 회화 작가
-주요작가: 이우환, 박서보, 서승원, 이동엽, 김기린, 김창열, 유희영, 윤형근, 최명영, 유병수
3. 사물과 신체(3실): 사물과 신체 등 실재와 현상, 사물과 이미지 관계 탐구
-주요작가: 곽인식, 김구림, 이강소, 이명미, 박현기, 이향미, 최병소, 신성희, 한영섭, 이배, 이견용
4. 앵포르멜과 기하학(4실): 시대별 앵포르멜과 기하학적 추상 흐름
-주요작가: 장석수, 이영룡, 이동진, 유병수, 류경채, 박광호, 최욱경, 이향미, 최영조, 최학노, 문종옥, 정은기, 문곤
5. 형상에서 추상으로(5실): 초기 추상화의 시작과 한국화의 현대화
-주요작가: 김환기, 이성자, 유영국, 남관, 정점식, 정창섭, 서세옥, 이응노, 최만린